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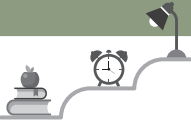
모든 사물을 ‘질료’와 ‘형상’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형상설은 서구의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구의 회화 역시 질료와 형상의 관계를 통해서 사유되었는데, 이때 초점은 늘 형상에 있었으며 질료는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질료는 형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바탕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사유는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20세기 초반 추상 미술을 이끌었던 몬드리안은 대상의 특징을 기하학적인 형태인 점, 선, 면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기하학적 추상을 선보였다. 이는 ㉠ ‘차가운 추상’으로 불렸는데, 몬드리안은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와 정형화된 양식을 통해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이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고 조화와 균형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당대의 많은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러한 정형화된 양식,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에 반발하면서 즉흥적이며 자유분방한 표현을 추구하고 질료를 중시하는 양식인 ‘앵포르멜(Informel)’이 대두되었고, 이는 ㉡ ‘뜨거운 추상’이라 불리게 되었다.

‘앵포르멜’은 ‘형태가 없는’이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 ‘앵포르름(informe)’에서 유래한 것으로, 형상보다는 질료에 중점을 두면서 질료 그 자체의 촉각적 질감에 주목하고, 비정형(非定型)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미술 양식을 말한다. 앵포르멜로 인해 질료는 형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바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들은 종종 ‘타시슴(Tachisme)’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얼룩을 의미하는 ‘타슈(tache)’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두꺼운 물감을 덩지덩지 발라 만든 얼룩과 같은 작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흥적으로 붓질을 하거나, 튜브에서 물감을 짜 그대로 화면에 흘리거나 찍어 대는 방법은 앵포르멜이 ‘타시슴’이라 불리는 이유를 말해 준다.

앵포르멜의 대표적인 작가인 뒤뷔페는 물감에 시멘트, 석고, 모래, 풀 등을 섞은 반죽을 화면에 두껍게 발라 올리는 ‘오트 파트’라는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종종 ‘질감학’, ‘재료학’이라는 작품명을 사용함으로써 ‘날것 그대로’의 질료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었으며, “나는 거칠고 덜 된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말을 통해 거친 질감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뒤뷔페는 어린아이나 정신병자의 작품, 도시의 낙서 이미지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예술적인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창조한 미술, 다듬어지지 않은 미술이야말로 훨씬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설적인 장면이나 단순화된 형태, 활력 있는 낙서 자국을 특징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체면과 예의 뒤에 숨겨져 있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평론가 타피에는 앵포르멜 작품들에 나타나는 물질과 행위가 정형화된 양식에서 벗어나 비정형을 향하는 새로운 탐구의 문을 열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미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앵포르멜 미술은 다른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기존의 관념들을 뒤집는 미술 운동의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9002-0179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앵포르멜 미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앵포르멜 미술이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③ 앵포르멜 미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앵포르멜 미술의 등장 배경과 개념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작가의 특징을 통해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앵포르멜 미술과 이와 대립하는 미술 이론의 특징을 소개하고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9002-0180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새로운 발상을 보여 주었다.
- ② ㉠은 ㉡과 달리 기하학적인 형태를 활용하여 조화와 균형을 나타내었다.
- ③ ㉠은 ㉠과 달리 질료 자체가 지닌 촉각적 질감에 주목하였다.
- ④ ㉡은 ㉠과 달리 정형화된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표현을 추구하였다.
- ⑤ ㉠과 ㉡은 모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9002-0181

0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20세기 이전의 서구의 사유에서는 형상이 질료보다 더 중시되었다.
- ㄴ. 앵포르멜은 형상을 받아들이는 바탕으로서의 질료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 ㄷ. 앵포르멜은 계획적인 방식으로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 만든 얼룩과 같은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타시즘’이라 불리었다.
- ㄹ. 뒤뷔페는 물감에 여러 물질을 섞은 반죽을 활용한 ‘오트 파트’ 기법을 통해 ‘날것 그대로’의 질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9002-0182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거친 질감이 살아 있는 판화로 그려진 뒤뷔페의 「벽」 연작 중 8번 「벽에 소변 누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비례 감각이 전혀 없는 큰 머리, 가느다란 선만으로 묘사된 지나치게 왜소한 몸을 가진 두 남자가 벽에 소변을 누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왼쪽 벽은 낙서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낙서는 제도권의 법, 도덕, 문화 등에 저항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욕망의 분출구라고 볼 수 있다.

- ① 제도권에 저항하는 의미를 지닌 낙서에서 본능보다 예의를 중시했던 뒤뷔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② 거친 질감을 살려 판화를 제작한 것에서 거칠고 덜 된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뒤뷔페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 ③ 낙서로 가득 찬 벽의 모습에서 낙서를 진실한 모습을 보여 주는 욕망의 분출구로 보았던 뒤뷔페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④ 남자들이 벽에 소변을 누고 있는 장면에서 사회적 체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원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뒤뷔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⑤ 어린아이가 그린 듯이 큰 머리와 왜소한 몸으로 그려진 두 남자의 모습에서 예술적인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미술을 선호하고 이를 활용했던 뒤뷔페의 안목을 엿볼 수 있다.

